



1887년 景福宮 乾清宮에 電氣가 들어온지 8년후에 우리나라 電氣事業의 起源이라고 할 수 있는 漢城電氣會社가 1898年 1月 26日에 설립되어 99년이 경과되고 내년이면 우리나라 전기사업 100周年을 맞이하게 된다.

初期의 電氣事業은 日帝의 植民地정책의 일환으로 경영되어 公益事業의 개념이없는 日本人의 私企業의 운영으로 電氣會社의 亂立 병합 통제 통합 등의 과정을 거쳐 浮沈되어왔다.

그후 8. 15해방, 國上의 분단, 5. 14斷電, 6. 25동란 등 국가적인 격동기를 지내면서 심각한 電力難에 봉착하여 電氣會社의 合理化 운영을 위하여 電氣3社 統合論이 대두되어 장기간 논의되었으나 結實을 보지 못했다.

1961년 5. 16혁명후 電氣3社의 통합으로 韓國電力이 單一會社로 발족되어 우리나라 電氣事業 100년의 歷史에서 가장 큰 劃을 긋는 전환점이되어 한국전기발전에 기초를 닦고 뜻깊은 開發成長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현시점에서 電氣事業 100年에서 큰 비중을 갖는 電氣3社의 統合의 歷史의 意義를 살펴보고 21세기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 1. 電氣事業體의 統合論

8.15 해방을 맞이하고 보니 電源의 대부분이 北韓지역에 편재하게 되고 南韓은 총설비 19만 8,740kw(수력 6만 2,240kw, 화력 13만 6,500kw)를 가지고 하나의 發電會社와 두 개의 配電會社로 분리운영하게 되고 극심한 電力難으로 각계에서는 전기사업체의 改編 또는 統合論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6. 25동란으로 전력시설의 대부분이 극심한 피해를 입게되어 電力難은 더욱 가중되었을 뿐 아니라, 3개電力會社가 모두 자기자본을 蝕食하는 운영의 악순환만 되풀이하게 되자 電氣3社 統合論은 더욱 강력히 제기되었으나 좀처럼 실현을 보지못하고 논란만을 거듭하였다.

### 1.2 統合의 當爲性

이 統合論은 電氣3社 분리운영의 결함으로서 ① 稼動率의 저하 ② 電力損失의 과다 ③ 勞動生産性의 저하 ④ 收

支의 불균형 ⑤ 資金事情의 악화 ⑥ 만성적인 적자운영 등을 지적하고 통합의 이유를 밝혔다.

당시 전력사정은 電力難을 극복하기 위한 新規電源開發은 고사하고 현존 노후시설의 대한 개보수조차도 불가능한 상태로써 자기자본 잠식적인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資金面에서 配電會社는 매년 事業未收금이 누증되어 發電會社의 사업미수금으로 계상되고 朝鮮電業(株)의 이와같은 자금사정은 연료공급자인 大韓石炭公社의 석탄대금 미수금으로 전환되어 악순환을 거듭하였다.

民族資本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電源開發은 외국으로 부터의 차관에 의존해야 되는데 發電會社와 配電會社가 분리되고 있어 電源開發을 위한 外國借款金에 대한 發電會社의 擔保能力이 미약하여 실현의 난점이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總發電施設容量은 당시 36만 7,000kw로써 외국외로 한회사의 시설이 수100萬-수1,000萬kw에 이르는데 비하여 그 규모가 매우 적은데도 불구하고 발전, 배전3社로 분리운영되고 있어 운영합리화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

稼動率에 있어서도 시설되어 있는 설비마저도 노후화하여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발전설비에 대한 평균가동률은 8. 15전 55%에서 11.7%로 떨어지는 등 극히 저조하였다.

이와 같이 낮은 稼動率에 電氣損失마저 과다하여 발전은 하였으나 송배전 시설의 종합손실률은 당시 선진국에서 10%내외인데 비해 한때 41.7%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총원가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는데 비해 노동생산성은 낮아 당시 외국의 경우 발전량이 1인당 115만kwh/1年인데 비해 23만5,000kwh/1年의 저조한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했다.

1개의 發電會社와 2개의 配電會社가 分離運營하므로써 費用적으로經費의 支出이 중복되고 있으며 따라서 電力販賣原價도 높아질 수 밖에 없어 3社의 수지의 불균형, 자금사정의 악화등 만성적인 적자운영으로 국가산업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또한 3사가 분리운영됨으로써 지역별 給電을 公平化하지 못하고 전력공급의 균형을 도모할수 없어 公共福利事業으로서의 서비스면에도 결함이 있었다.

電氣料金 책정면에서 있어서도 불합리성이 있었다.

전기사업은 발전, 송전, 배전의 3개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를 분리하여 각기 단독으로 適定料金を 산출할수 없어 배전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電氣料금이 동일하게 책정되었다.

수차에 걸쳐 발전, 배전요금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사의 適定料金を 책정하지 못하였다.

3社統合은 이와같은 여러 가지 불합리성과 결함을 시정하고 電源開發을 추진하는데 巨視的인 妥當性이 있는것이다.

### 1.3 統合의 推進

따라서 이와같은 統合論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1949년 6월 14일 大韓電氣學會에서는 尹日重회장의 명의로 「電氣事業의 國營 早速實施를 建議함」이라는 대정부 건의서를 정부요로에 제출하였다. 이와같은 여론에 의하여 1951년 5월 23일 國務會議에서 電氣業3社의 통합안을 처음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고 이어 1953년 6월 상공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電氣事業臨時調查委員會」를 구성하여 통합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 위원회는 다시 「電氣事業體統合委員會」로 개편 상공부에 설치하였다.

통합위원회는 1953년 9월 大韓電力會社法案을 심의 결정하여 상공부장관에 제시하였으나 이 試案은 국회상공위원회를 비롯한 각계의 비판으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유보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1957년 11월 5일 財務部에서 제시한 통합안은 귀속주는 發電事業, 配電事業 및 運輸事業등으로 분리하여 불하한다는 원칙을 심의하여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고 또 財務部는 配電회사의 歸屬株를 1958년 2월 중순까지 불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전기3사 통합문제는 1959년 8월 26일 다시 제기되어 정부는 조선전업·경성전기·남선전기의 電氣3社의 歸屬株를 불하하여 民營化 한다는 방침아래 「發電會社歸屬株處理事務協議會」를 구성했다.

이에따라 配電會社의 民間株主는 「民間株主權益擁護對策委員會」를 구성하고 불하방침에 대한 시정건의안을 제시, 논란을 거듭하다가 1960년 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갑자기 전기3사의 통합을 결의함으로써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였으나 3. 15선거와 4. 19혁명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후 1960년 6월 28일에 수립된 過渡政府는 다시 전기3사의 통합업무를 추진하였다. 7월 20일 동 閣議에서는 京電 및 南電을 朝鮮電業에 흡수·합병하고 합병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電氣事業統合委員會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電氣3社의 민간주주들은 물론 사회 일각에서도 통합을 반대하는 소리가 높았다.

1960년 8월 8일 제2공화국이 탄생되고 民1:黨의 새정부가 수립되자 동년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는 민간주주와 노동조합의 끈질긴 반대운동을 물리치고 電業3社를 통합하여 國營化하고 운수사업만 분리운영한다는 원칙을 의결했다.

이에대해 民間株主와 勞動組合에서는 전력사업의 합리화 운영보다는 각자의 권익만을 위하여 반대투쟁을 전개했다.

이와같은 반대여론이 제기된 가운데 1961년 2월 8일 韓國電力株式會社法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民議院에 회부하였다.

이와같이 民議院에서 法的節次가 진행되어 電氣3社 統合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질무렵 5. 16軍事革命이 일어나 다시 중단되었다.

## 2. 電氣3社의 統合 韓國電力의 發足

5. 16군사혁명으로 일시 중단되었던 統合業務는 혁명정부의 강력한 電力政策에 의하여 1961년 6월 8일 상공부장관에 의하여 電氣3社 統合設立準備委員會가 구성되고 통합업무는 급진전을 보게 되었다.

1996년 6월 23일 상공부가 제출한 한국전력주식회사법안이 國家再建最高會議에서 의결됨으로써 마침내 동 법안이 공포되어 電氣3社의 통합이 확정되고 韓國電力株式會社를 신설하게 되었다.

같은날 한국전력주식회사 설립위원으로 朴英俊(한국전력주식회사 사장 내정자), 黃寅性(조선전업 사장), 金德俊(남선전기 사장), 趙仁福(경성전기 사장)이 임명되어 다음날 6월 24일 상공부에서 개최된 설립위원회에서 조선전업(주), 경성전기(주), 남선전기(주)의 3사의 合併契約을 電氣3社 사장이 상공부장관과 설립위원 임피회에 조인하고 한국전력주식회사 정관을 심의결정하고 6월 26일 電氣3社는 각각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계약서를 승인하고 해산결의를 하였다.

이로써 1961년 7월 1일 역사적인 3社統合이 실현되고 韓國電力株式會社가 창립되었다.

### 2.1 統合의 利点

한국전력이 새로 발족됨으로써 누적된 적자운영과 타성화된 전력사정 악화상태를 지양하고 새로운 구상과 계획으로 제1차 전원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힘찬 건설을 시작하게 되었다.

#### 2.1.1. 經費의 節減

중복된 인원의 정비, 자금계획의 일원화, 기술의 집중, 간접비의 절약, 구매의 통제, 자재 재고의 축소 등 경비를 절감으로 운영의 합리화를 기해나갔다.

#### 2.1.2. 電源開發 事業推進

전원개발 사업은 과거에는 발전수입에만 의존하던 것을 배전수입이 모두 상환 재원대상이 되므로 담보능력이 강화되어 전원개발자금에 외국차관이 용이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신규전원개발 사업에 착수하여 화력발전소 건설추진, 시설복구등 전력대책을 수립하고 극심한 전력난을 해소하였다.

#### 2.1.3. 運營의 活性化

전기 3사로 분리되었던 운영계통이 단일화됨으로써 기재

의 구입, 저장 및 활용 등을 비롯하여 운영전반에 걸쳐 최대한의 효율을 기할수 있었다.

**2.1.4. 電氣料金の 單一化**

3사통합으로 지역별 전력공급의 공평화를 기하고 전력요금을 균일화하고 62년 9월전기요금을 개정하여 적정을 기하고 소동력요금을 10%인하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2.1.5. 公共利益的 保障**

3사 통합으로 운영업체간의 마찰과 책임분산이 방지되고 전력수급조정과 재무규제 등을 일관성 있게 수행하여 공공이익에 기여 하였다.

**2.1.6. 企業의 自律性 保障**

한국전력주식회사법에 의하여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대하여 종전의 승인제를 지양하고 보고제로 규정하여 업무의 신속을 기하고 경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통제를 제한하고 책임운영을 강조하였다.

**2.1.7. 再投資率에 增大**

경영합리화에 의하여 상당한 흑자를 내게 되어 이를 재투자하게 됨으로 설비의 확장과 노후시설의 교체복구를 촉진하였다.

**2.1.8. 서비스의 擴大**

신규진원개발에 의하여 발전량이 증가되고 시설이 개선됨으로써 수용가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수용가 봉사체제를 확립하였다.

**2.2 統合의 成果**

韓國電力은 창립과 더불어 3사통합취지와 목적을 구현하고 利點을 살리기 위해 경영전반에 걸쳐 改革을 단행했다.

3社 統合으로 인한 기구의 개편으로 인원을 정비하고 선진운영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계획 심사분석, 재산재평가 등 새로운 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갔다. 특히 電源開發사업에 있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電源開發 5年計劃을 年次的으로 수립하여 통합당시 36萬 7,000kw에 불과했던 발전설비는 1968년에 이르러 100만kw를 달성하고 1982년에는 1,000만kw를 완성하는등 1964년에 無制限送電을 실시하여 해방후 오랫동안 되풀이 해오던 電力難을 해소하였다.

電力損失에 있어서도 통합당시 30%의 損失을 송배전설비의 보강증설등으로 1977년에 이르러 10%선으로 저하되었으며 1982년이후 6%~5%를 유지하여 선진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經營指標면에서 성장은 통합당시 총자산 133억원에서 95년말 27조 1,651억원으로 증가되고 발전설비는 3,400여萬kw로 증가되었으며 勞動生産性은 종업원 1인당 23萬5,000kwh/1年에서 664萬kwh/1年로 電力消費量은 年間 人口1인당 46kwh에서 3,640kwh로증가되었다.

또한 技術蓄積에도 長足の 발전으로 1971년 3월 古里原子力發電所 건설에 착공 78년에 58kw 1호기를 완공하여 현재 4個발전소 10機로 861萬kw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같이 축적된 기술은 국내전력수급뿐만 아니라 對北 輕水爐支援 事業을 전담하게되고 海外電力建設에 착수하여 9개국에서 21개 발전소건설 및 지원에 진출하고 있다.

이와같은 成果에 대하여 금년에 이르러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에디슨電氣大賞을 수상하고 大韓民國企業文化 最優秀賞 그리고 세계 100대 기업중에서 79위로 진출하는 등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와같은 오늘의 成果는 電氣3社의 분리운영으로 방만한 경영에서 1961년에 통합을 이루고 단일전력회사로서 그 기반을 구축하여온 電氣3社 統合의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 자 소개



**신기조(辛基祚)**

1923년 8월 29일생. 1943년 경성 고등공업 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1943년 조선전업 입사. 1947년 조선전업(주) 전기부 급전과장. 1950년 조선전업(주) 청평수력 발전소장. 1953년 조선전업(주) 화천수력 발전소장. 1955년 전기부 수력과장. 1958년 상공부 전기국 기계과장. 1958년 상공부 전기국 전력과장. 1961년 한국전력(주) 기획처 개발기획실장. 1962년 한국전력(주) 이사(건설담당). 1974년 한국전력(주) 부사장. 1976년 한국전력(주) 사임. 1976년 코리아카이자엔지니어링(주) 부사장. 1978년 한국원자력기술(주) 수석 부사장. 1984년 대한엔지니어링(주) 회장. 1989년 한국전력기술(주) 사장. 1990년 한국전력기술(주) 상담역. 1992년 한국전력기술(주) 사임. 현재 한전 전우회 회장